

적용받은 대출금리따라 신용평가... 이달부터 신용점수제

대출 문턱 낮아지고 여신심사 정교해져...대출, 높은 금리부터 갚아야 공공요금 성실납부 도움...마이뉴스 통장·카드론 사용 안하는게 좋아

이달부터 신용등급제가 사라지고 모든 금융업권에서 1-1000점 만점의 신용점수제가 시행되고 있다.

1-2점 차이로 등급이 낮아 1금융권(1-6등급) 대출을 받지 못하는 '절벽구간'이 사라진다는 뜻으로, 대출 문턱이 완화되고 더 정교한 여신심사가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

신용점수는 소득이나 재산이 아니라 '돈을 갚을 수 있는 능력'을 보기 때문에 신용평가사가 세운 기준을 살펴보고 점수를 관리해야 한다.

신용평가사인 나이스평가정보와 코리아크레딧

뷰로(KCB), SCI평가정보는 신용점수제 도입에 맞춰 각각 새로운 신용평가 모델을 개발해 적용하기 시작했다. 카카오페이와 토스, 뱅크샐러드 등은 이들 신용평가사와 제휴해 신용점수 조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신용평가제도가 변하면서 2금융권 저축은행에서 대출을 받는다는 이유로 신용등급이 크게 떨어지는 문제도 차차 해결될 것으로 보인다.

단순히 2금융권에서 대출을 받았다고 신용도가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적용받은 대출금리'에 따라 신용평가가 이뤄지도록 바뀌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대출은 금리가 높은 것부터 갚는 것이 좋다. 신용평가사는 대출의 종류와 업권, 금리 수준, 상환 비등 등을 고려해 고위험 대출일수록 신용 평가에 부정적으로 반영한다.

같은 이유로 대부업 대출은 신중하게 이용해야 한다. 제도권 금융기관뿐 아니라 대부업체에서 받은 대출 정보도 자동으로 평가에 반영된다.

대출 자체는 부정 평가 요인이지만 반대로 대출을 잘 갚으면 신용점수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신용거래 실적도 쌓인다.

마이뉴스 통장은 한도금액만큼 채무 부담을 지고 있는 것으로 반영되기 때문에 사용하지 않는다면 없애는 것이 신용점수를 높이는 데 도움이 된다.

10만 원대 소액이라도 상환을 연체하는 일은 최대한 피해야 한다. 연체된 돈을 다 갚아도 최장 5년

동안 기록이 남아 신용평가에 나쁜 영향을 준다.

만약 연체가 여러 건이라면 오래된 것부터 해결하는 것이 좋다. 연체 기간이 길수록, 연체 횟수가 많을수록, 연체 금액이 많을수록 신용평가에 부정적이다.

한국신용정보원에 등록된 세금·공과금 체납 정보, 한국장학재단의 학자금 대출 연체 정보도 신용 점수에 영향을 미치므로 평소에 잘 관리해야 한다.

마찬가지로 신용카드나 체크카드를 연체 없이 꾸준히 사용하면 신용점수를 올리는 데 도움이 된다.

단 신용카드 현금서비스나 카드론은 비교적 금리가 높은 대출에 해당하므로 빈번하게 사용하지 않는 게 좋다. 할부 서비스를 과도하게 사용하는 것도 신용평가에 나쁘다.

통신 요금, 건강보험료, 국민연금, 공공요금(도시가스·수도·전기·관리비) 등을 성실히 납부한 내역도 신용점수를 올리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특히 신용거래 이력이 부족한 학생·주부 등에게 이런 방법이 유용하다.

금융감독원과 신용평가사들은 "신용정보를 많이 조회하면 신용점수가 떨어진다는 것은 오해"라며 정기적으로 신용점수를 확인하고 관리하는 것을 권장하고 있다. 일부 서비스에서는 또래 직장인의 평균 대출한도와 금리 등을 공개해 비교할 수 있도록 했으며, 대출·카드·연체·보증 등 부채 현황을 한 눈에 볼 수 있도록 했다. 당사는 신용평가사에 신용 평가 결과에 대한 설명을 요구하거나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광주은행 - 서구 소상공인 특례보증 대출 협약

광주은행(은행장 송중욱)은 광주시 서구와 소상공인 특례보증 대출에 대한 이차보전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최근 밝혔다.

광주은행은 서구와 함께 지역 소상공인에 1년간 2%의 이차 차액을 보전하고 우대금리로 최대 0.3%포인트를 지원한다.

소상공인들은 1년간 1%대 금리 자금을 지원받고 중도상환수수료 면제 등 조기상환에 대한 이차 부담도 줄일 수 있다고 광주은행 측은 설명했다.

대출 한도는 업체당 최대 2000만원까지, 대출 기간은 최장 5년이다.

대상 기업은 서구에 소재한 소상공인으로 제조업·건설업은 상사근로자 10인 미만인 업체, 도소매업·외식업·서비스업 등은 5인 미만 업체이다.

광주은행이나 광주신용보증재단 추천을 받으면 된다. 광주은행은 지난해 동구·북구에 각 5000만원을 출연해 소상공인 특례보증 협약 대출을 시행했다.

송중욱 은행장은 "광주와 전남을 대표하는 은행으로서 코로나19로 경영난 등 어려움을 겪는 지역 내 소기업, 소상공인에게 힘이 되고, 지역경제를 되살리는 든든한 동반자가 되겠다"고 말했다.



송중욱(왼쪽) 광주은행장이 지난 31일 서대서 광주서구청장과 '서구 소상공인 특례보증 대출 이차보전 업무협약'을 맺고 있다. <광주은행 제공>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광주신보, 소상공인 대출이자·보증료 지원

500억원 긴급 운영자금 지급

광주신용보증재단이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1년 대출이자와 보증료를 지원하는 신규 특례보증을 시행한다.

광주신보는 광주시, 광주은행과 코로나19 위기 극복 소상공인 특례보증 융자지원 협약을 체결하고 본격적인 자금지원에 나선다고 3일 밝혔다.

광주신보는 이번 협약으로 지역 소상공인에 500억원의 긴급 운영자금을 추가 공급하게 된다. 지난 3월에는 전국에서 처음으로 무담보·무이자·

무보증료 3무(無) 혜택 특례보증 5100억원을 공급했다.

지원대상은 광주 소재 소기업과 소상공인으로, 2년 일시상환에 추가 3년 간 기한연장이 가능하다.

대출은 광주은행을 통해 공급되며, 대출금리는 연 2.7% 고정금리에 보증료는 연 0.7%이다.

광주신보는 광주시로부터 예산을 받아 1년 간 대출이자와 보증료도 지원하기로 했다.

특례보증 신청은 광주지역 광주은행 전 지점에서 할 수 있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 로또복권 (제944회)

당첨번호						2등 보너스숫자	
2	13	16	19	32	33	42	
등위						당첨금(원)	당첨자수
1	6개 숫자일치					1,961,836,356	13
2	5개 숫자 + 보너스숫자일치					53,805,639	79
3	5개 숫자일치					1,390,464	3,057
4	4개 숫자일치					50,000	147,665
5	3개 숫자일치					5,000	2,440,455

광주·전남 중소기업 경기 '찬바람'

중기중앙회 201개 기업 조사...업황전망 건강도 전년비 7.7P 하락

광주·전남지역 중소기업들의 경기전망이 2개월 연속 하락했다.

3일 중소기업중앙회 광주전남지역본부가 최근 광주·전남 중소기업체 201개를 대상으로 1월 경기전망조사를 실시한 결과 중소기업업황전망 건강도지수(SBHI)가 전월(72.2) 대비 2.8포인트 하락한 69.4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77.1)에 비해서는 7.7포인트 하락한 수준이다.

광주·전남 중소기업들의 경기전망은 지난해 10월과 11월 2개월간 잠시 상승한 뒤 다시 2개월 연속 하락하고 있다. 최근 코로나19 3차 대유행과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 등 조치에 따라 서비스업 같은 비제조업 부분의 체감경기가 얼어붙은

것으로 분석된다.

지역별로 광주가 전월(74.6) 대비 7.9포인트 하락한 66.7로 나타난 반면, 전남은 전월(67.7) 대비 17.3포인트 상승한 85.0을 기록했다.

업종별로 제조업은 전월(71.3) 대비 0.4포인트 상승한 71.7을 기록했으나, 비제조업은 전월(72.8) 대비 5.4포인트 하락한 67.4로 나타났다.

항목별로는 내수판매전망(70.5→68.4)은 하락했고, 자금사정전망(63.0→64.4)은 소폭 상승했다. 수출전망(69.0→75.0)은 전월에 이어 소폭 상승하였다. 고용수준전망(102.2→102.8)은 전월과 유사한 수준으로 전체적으로는 일손부족에 큰 변화는 없을 것으로 분석된다.

/박기용 기자 pbxer@kwangju.co.kr

코로나 확산에 굳게 닫힌 지갑

한국은행 소비자동향 조사 소비·저축 전망 전달보다 5P ↓

코로나19가 여전히 기승을 떨치면서 광주·전남 지역민들은 지갑을 닫고 저축은 줄일 계획을 세웠다. 이달 주택가격을 전망하는 지표는 관련 조사가 시행된 2013년 1월 이후 최고를 기록했다.

한국은행 광주전남지역본부가 최근 발표한 '2020년 12월 소비자동향조사 결과'에 따르면 소비자지출전망CSI(소비자동향지수)와 가계저축전망CSI는 각각 96과 88을 나타냈다. 이들 지수는 전달보다 5포인트씩 떨어진 수치다.

지수가 기준값 100(2003년 1월~2019년 12월 기준) 보다 크면 낙관적, 100보다 작으면 비관적이라는 뜻이다.

지역민들은 오래 쓸 수 있는 내구재(-8포인트)와 여행비(-8포인트), 의류비(-7포인트) 등

에서 소비지출을 줄일 것이라고 답했다.

지난 달 현재가계저축CSI는 1포인트 줄어든 87을 기록했고, 현재가계부채CSI는 2포인트 증가한 104를 나타냈다. 주택가격전망CSI는 4포인트 오른 128로 통계 집계 이래 최고를 찍었다. 임금수준전망CSI는 3포인트 줄어들었고 취업기회전망CSI는 무려 12포인트 떨어졌다.

경제 상황에 대한 소비자 심리를 종합적으로 보여주는 12월 소비자심리지수(CCSI)는 87.6으로 전달 대비 7.1포인트 하락했다. 전국은 89.8로 전월 대비 8.1포인트 하락했다.

지역 소비자심리지수는 코로나 확산세가 거세던 4월 74.5로 바닥을 찍은 뒤 5월 80.1, 6월 83.3으로 올랐다가 7월 80.4로 다시 꺾였다. 이후 8월 86.7로 살아난 뒤 재확산으로 2단계로 강화한 9월 75.8로 주저앉았다. 이번 조사는 지난 14~21일 광주·전남 도시 가구 중 600가구(응답 549가구)를 대상으로 이뤄졌다.

/백희준 기자 bhj@

에나앙

광주일보 문화예술매거진

2021년 1월호

12월 31일 발행
구독신청 : 062-220-0550
팩 스 : 062-222-0195

5060 新중년 인생 3모작을 꿈꾼다

백세 시대 남은 시간을 새롭게
배움으로 새 도전의 힘을 얻는다
도전의 성취 신중년
유튜버 스타 신중년

기획-TREND 2021
코로나로부터 벗어날 수 없다면
"거침없이 피보팅하라"

문화를 품은 건축물 ⑤
한옥의 넉넉함 품은 화이트 큐브
아모레퍼시픽미술관

클릭, 문화현장 ④
시민과 미디어아트 만나는
양림동의 새 복합문화공간
이이남스튜디오

김정운의 바우하우스 이야기 ⑥
주관성 강조한 괴테의 색채론
젊은 칸딘스키의 색채론

에나앙 초대석

치유의 글 쓰는 정신과 의사 문요한

"몸과마음이 유연해져야 합니다"

문양이 숨쉬는 문학관을 찾아서
기형도의 성정 느껴지는 공간
광명 기형도 문학관

화제의 전시
아시아문화국제사립공모전
수상작 전시

화제의 문화공간
아마추어 예술인을 위한 공간
'벨라 151'

철학자 최진석과 책 읽고 건너가기

왕인의 '예술가의 한 끼' ⑥
'화단의 테러리스트' 황창배,
요리도 '카레 튀김짜개' 파격

화제의 문화현장
세계인이 감탄한
제주 '생각하는 정원'

에나앙의 대중문화 X파일 ⑥
스크린 스타들 드라마 복귀
열풍 까닭은?

화제의 문화현장
세계인이 감탄한
제주 '생각하는 정원'

성실함으로 주목받는 KIA 볼펜포수 이동건

사육사육 담도 한 바퀴루장성

경의 문양 사책,
자서 힐링 여행

트리킹 활동과 대표 서원
레드향 사인 머스킷